

언간(諺簡) 자료와 여성

Women and Vernacular Letters of Joseon Period

황문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Munhwan HWANG

(Professor of the Graduate School,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차례 -

1. 머리말
2. 조선시대의 언문(諺文)과 언간(諺簡)
3. 왕실 언간과 여성
4. 민간 언간과 여성
5. 맺는말
6. 참고 논저 (※기타: 웹서비스, 서체사전, 판독자료집, 입문서, 어휘사전 소개)

☞ temporary English translation [※English translation provided here is not accurate, reliable translation. This was roughly written with the help of Google Translator, so please use the lecture content as a reference only and do not quote it.]

1. 머리말

지난해에 이어 오늘 이런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빈첸자 두르소 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언간 자료의 특성과 가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이 실제 발신자가 되어 보낸 편지를 실물 이미지와 더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언간 자료는 ‘여성’과 특히 관련이 깊은데 우선 이에 대한 말씀부터 간단히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Professor Vincenza D'Urso and everyone involved for providing this precious opportunity today. Last year, I spoke generally about “Characteristics and Value of the Vernacular Letters during Joseon Period.” Today, I would like to focus on ‘women’ and introduce letters sent by women as actual senders, along with actual images. As I mentioned last time, the vernacular letters are particularly related to ‘women’, so it would be better to start by briefly talking about this first.

2. 조선시대의 언문(諺文)과 언간(諺簡)

조선시대에 쓰여진 한글 편지는 흔히 ‘언간(諺簡)’으로 불립니다. 이는 당시의 한글이 ‘문자(文字)’, ‘진서(眞書)’ 등으로 지칭된 한문(漢文)과 대비되어 ‘언문(諺文)’¹⁾으로 불린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종 대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로 한국어는 전면적인 표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실제 사용 범위는 꽤 한정되어 종래의 한문을 대신하기보다는 한문 서적의 언해나 한자음 정리 등 한문을 보완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安秉禧 1985: 805~820, 남풍현 1996: 25~26)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당시의 한글은 ‘훈민정음’(흔히 ‘정음’으로 약칭)이라는 정식 명칭보다 ‘언문’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또한 ‘언문’으로 작성된 문서가 정당한 문서로 인정되지 않은 데서 보듯이 ‘언문’은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이 극히 제한되었습니다. 1894년 고종(高宗)이 ‘법률과 칙령은 국문을 기본으로 하되 한문 번역을 붙이거나 국한문을 혼용하거나 한다(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混用國漢文)’라는 칙령을 내리기까지 한글은 조선시대 내내 ‘국문(國文)’으로서의 공식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언문’의 지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name of ‘*eon'gan*’ first. Letters written in the Korean alphabet during the Joseon period are usually referred to as *eon'gan* (諺簡, "vernacular letters"). This is a reflection of the fact that the Korean alphabet in those days was called *eonmun* (諺文, "vernacular script") and considered lower in quality as compared to the Chinese script, which was called *munja* (文字, "characters") or *jinseo* (眞書, "real script"). As is well-known, it became possible to record the Korean language in full measure due to the promulgation of *hunmin jeong'eum* (訓民正音, "Correct Sounds to Teach the People") in the reign of King Sejong, but the usage of *hunmin jeong'eum* was largely restricted in practice. And far from replacing Chinese script to become the official script, *eonmun* acquired only supplementary functions such as translating Chinese books or regulating readings of Chinese characters.(An Byeong-hui 1985: 805~820, Nam Pung-hyeon 1996: 25~26) Moreover, the formal usage of *eonmun* was extremely restricted, which can be inferred from the fact that documents written in *eonmun* were considered unofficial. *Eonmun* was not acknowledged as the true national script until a royal edict was declared by King Gojong (高宗) in 1894 that read, "All laws and orders should in principle be written in Korean script with translation in Chinese script, or, they could be written by mixing Korean and Chinese scripts."

‘언문’의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던 현실은 바로 ‘언간’에 적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약은 무엇보다 언간을 주고받은 사람의 성별(性別)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16세기 중반 이래로 술한 언간이 현전하지만 남성 간에 주고받은 언간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²⁾ 이는 남성 간에는 한문 편지가 오간 때문이지만, 남성이 공적인 영역을 독점했던 당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언문’이 공식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과 상통합니다. 결국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

1) 이때 한자 ‘諺’의 의미는 “vulgar”가 아니라 “vernacular”에 가까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 문헌에서는 일본에서 쓰이는 문자(히라가나)를 일본의 ‘諺文’으로 서양에서 쓰이는 문자(알파벳)을 ‘서양 언문’으로 지칭한 사례가 있습니다.

☞ At this time,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meaning of ‘諺’ is not “vulgar” but “vernacular.” In the old literature, there are actual cases in which the characters (Hiragana) used in Japan were referred to as Japanese ‘諺文’ and the characters (Roman alphabets) used in the West as ‘서양 언문.’

2) 물론 남성간에 언간이 실용된 경우도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주종간(主從間)에 오간 언간이나 외교상(外交上) 기밀(機密)을 유지하기 위해 오간 언간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황문환(2015: 29~33)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Of course, there are exceptions that *eon'gan* were used between men. These are the examples that have been exchanged between master and slave, or those used to maintain diplomatic secrecy.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Hwang Mun-hwan(2015: 2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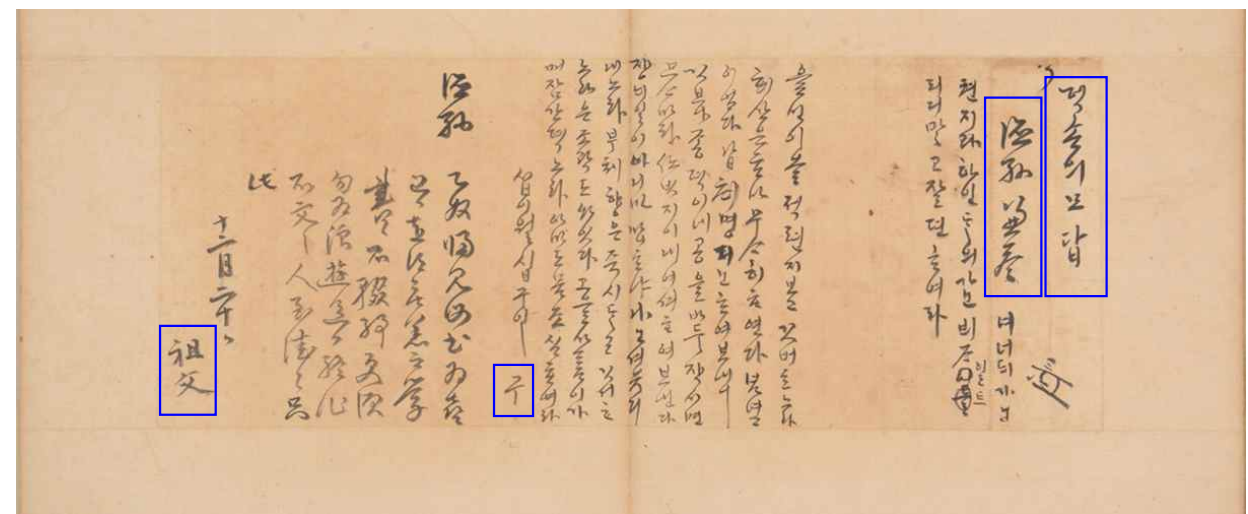
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성별(性別)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언간’은 ‘내간(內簡)’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이 단순히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른 시기의 언간에 해당하는 16, 17세기의 것만 보더라도 수신자는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하여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계층의 남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문 편지가 사대부 계층 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白斗鉉 2001: 201~207)

☞ The vernacular script was restricted for public usage, and the same was true of vernacular letters (諺簡). The limitation is more apparent in the gender of those who wrote and received eon'gan. From the middle of the sixteenth century, many eon'gan were exchanged, but it is difficult to find eon'gan used among men. Rather, it seems that men wrote letters using Chinese characters amongst themselves, from which men's dominant social position in contemporary society can be inferred, and this fact agrees with the assumption that eonmun was not acknowledged as official. Therefore, in the Joseon Period, whether it was the sender or the recipient of the eon'gan, at least one was certain to be a woman. Another name for eon'gan is naegan (內簡, "inner letters") due to its gender-specific characteristic. However, it would be a mistake to conclude that these letters were written by and sent to women only. Existing eon'gan from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show that recipients could be men of all classes in society, ranging from the king and scholar-officials down to commoners who have mastered eonmun. Although letters written in Chinese script circulated exclusively among scholar-officials, eon'gan did not belong to any specific class, that is to say, anyone could be the composer or the recipient of eon'gan.(Baek Du-hyeon 2001: 201~207)

언간이 특히 여성과 관련된 특징은 아래 편지의 사례에서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대부 남성인 송규렴(宋奎濂, 1630~1709)이 쓴 답장인데 며느리와 손자를 동시에 수신자로 한 편지입니다.

☞ The characteristic of vernacular letters that are particularly relevant to women can be clearly seen in an example of the letter below. Below is a reply written by Song Gyuryeom (宋奎濂, 1630~1709), a male scholar-official, with both her daughter-in-law and grandson as recipients.

<송규렴 언간(1683~1708년 사이): 시아버지(‘구’) → 며느리 ; 할아버지(‘祖父’) → 손자(‘德孫’)>
(『先札』, 경기도박물관 소장)



위 이미지의 오른쪽은 봉투입니다. 봉투에는 ‘덕손의 모 답’이라 하여 며느리(‘덕손의 모’)에게 하는 답장으로 되어 있지만 동시에 ‘德孫兼答’이라 하여 손자(‘德孫’)에게 하는 답장도 겸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규렴은 여성인 며느리에게는 언문으로 답장을 한 데 반해 남성인 손자에게는 한문으로 답장을 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장의 편지 내에서도 성별(性別)에 따라 표기 수단을 달리한 사례를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Song Gyuryeom (宋奎濂), a male scholar-official, replied to her female daughter-in-law in vernacular script, while replying to her male grandson in Chinese character. Here you can see an example of different writing methods depending on gender even within a single letter.

2. 왕실 언간과 여성

그럼 이제부터 현재 전하는 편지의 실물을 이미지로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신자가 왕실 여성인 편지를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From now on, I will tell you while showing you the actual letter as an image. First, I will introduce letters from royal women, divided into several topics.

(1) “안부”

‘안부’를 주고받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편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일 것입니다. 특히 왕실에서는 조석(朝夕)으로 빈번히 편지가 오갔기에 안부를 묻는 이른바 문안 편지는 더더욱 중요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로부터 왕실에서는 일상의 소소한 부분까지 지켜야 할 격식(格式)이나 법도(法度)가 많았습니다. 편지쓰기도 예외는 아니어서 편지를 쓰는 사람은 상대에 따라 존대(尊待)하고 겸양(謙讓)하는 일정한 격식(格式)을 알아야 했습니다. 또한 민간의 필적(筆跡)이 궁궐에 남아서는 안 되는 금기(禁忌) 때문에 궁궐 밖에서 온 편지를 받으면 그 여백에 답장을 적어 내보내는 것이 궁중의 법도였습니다. 이러한 격식과 법도를 한눈에 보여 주는 왕실 편지가 전합니다.

☞ Exchanging ‘greetings’ i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letters, both then and now. In particular, in the royal family, letters were frequently exchanged in the morning and evening, so-called greeting letters asking how people were doing were bound to be even more important. Since ancient times, there have been many formalities and rules that must be observed in the royal family, even the smallest details of daily life. Letter writing was no exception, and the person writing the letter had to know certain formalities to show respect and humility to the other person. Also, because of the taboo that civilian handwriting should not remain in the palace, it was royal tradition to write a reply in the margin when receiving a letter from outside the palace and send it out. A royal letter conveys these formalities and laws at a glance.

【관독문】 문 [頭]안 엿줍고 야간 [頭]성후 [間]안녕호오신 문 [頭]안 아웁고져 바라오며 날이 썩오니 더욱 섭 〃 호오미 아므라타 업스와 호웁노이다 <딸(숙명공주) → 아버지(효종)>

글월 보고 도히 이시니 깃거 호노라 어제 양식 축 보내엿더니 본다 면즈등 이 수대로 보내노라 <아버지(효종) → 딸(숙명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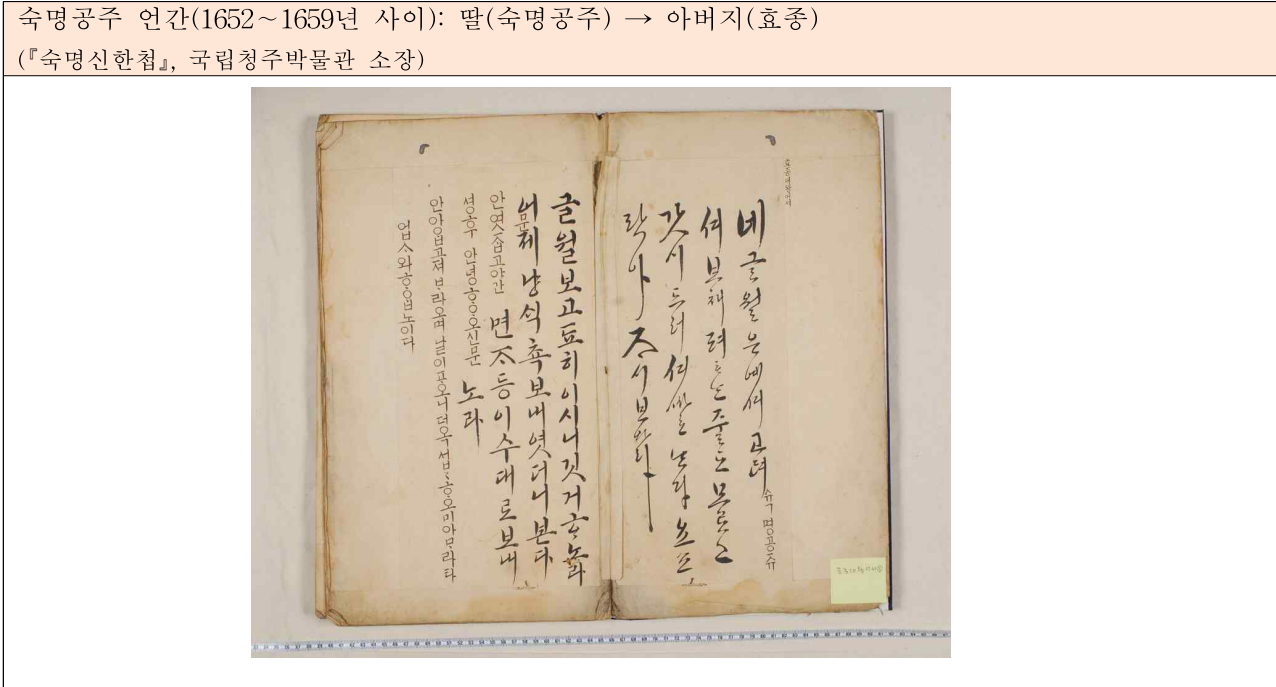
【현대역】 문안(問安) 여쭙고, 밤사이 성후(聖侯, 임금의 건강) 안녕하오신지 문안 아웁고자 바라오며, 날이 거듭되오니 더욱 섭섭하옵이 아무령다(=무어라) 말할 바가 없어 하옵니다.

☞ I wonder how is your health during the night. I am not able to say anything about it since I have not seen you for a few days.

글월(=편지) 보고 잘 있으니 기뻐한다. 어제 양색(兩色) 초를 보냈는데 보았느냐? 면자등 이 수(數)대

로 보낸다.

☞ I am happy to see your letter. Did you receive the two-colored candle I sent yesterday? I am sending also candlelights as the number written down in the letter.



우선 위에서 언간첩 전체의 이미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언간첩은 수신자인 숙명공주 집안의 후손들이 숙명공주가 생전에 받은 왕실 편지를 모아 편집하여 만든 것입니다. 첩의 왼쪽과 오른쪽에 두 편지가 나란히 편집되어 있지만 이 두 편지는 서로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별개의 편지입니다. 첩(帖)의 왼쪽 편지 가운데 가는 글씨로 적힌 부분이 숙명공주(淑明公主, 1640~1699)가 부왕(父王)인 효종(孝宗, 1619~1659)에게 드린 문안 편지입니다. 숙명공주는 해정(楷正)한 필체로 또박또박 글씨를 쓴 가운데 부왕의 안부와 관련된 글자는 모두 대두법(擡頭法)이나 간자법(間字法)을 빠짐없이 적용했습니다. [예컨대 ‘문안’의 ‘안’(2회)과 ‘성후’는 대두법이, ‘안녕’은 간자법이 각각 적용된 것입니다.] 이 편지는 성첩(成帖) 과정에서 발신자를 표시하는 편지 끝부분이 잘리고 말았지만 잘리지 않았다면 첩(帖)의 오른쪽 편지에 보이는 발신자 표시(‘숙명공주’)가 편지 하단에 다른 글씨보다는 좀 작은 크기로 (행 오른쪽에 치우쳐)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나 크기 자체 또한 수신자에 대해 (발신자의) “겸양”을 표현하는 한 방식이었습니다.

☞ Please take a look at the entire image of an album above. This album of vernacular letters is the compilation of royal letters received by the Princess Sungmyung (淑明公主) in her life. Two letters are edited side-by-side on the left and right side of the album, but these are separate letters that do not connect with each other in content. The part written in thin letters on the left is the letter of regards given to Hyojong (孝宗) by his daughter, the Princess Sungmyung (淑明公主). As you can see in the next image, the sender (Princess Sungmyung) applied daedubeop (擡頭法, "method of rising the head of the line or ganjabeop (間字法, "method of leaving a blank") without fail to the expressions related to her father's regards while writing neat letters with a regular handwriting. [For example, in '안' (2 times) of '문안' and '성후' is applied the daedubeop (擡頭法), while in '안녕' is applied the ganjabeop (間字法) respectively.] This

that the three princesses who wrote the letters including the Princess Sukhwi have used similar ritual expressions. Then the father King Hyojong replied, as if to threaten his daughters: "You are not sincere at all because three sisters have written letters with the same content. If you write a letter again like this, I will not receive it." The royal letters should have respected the established rules and forms, but due to such formality you can also get a glimpse of the side effect that the content of the letter became monotonous and uniform.

효종대왕 언간(1642~1659년 사이): 아버지(효종) → 딸(숙휘공주)
 (『숙휘신한첩』,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



【관독문】 너희는 세히 마치 한 말[숙휘공주]로 글월을 덕어시니 그장 정성 업스니 후에 또 이리 하면 아니 바들 거시니 알라 <아버지(효종) → 딸(숙휘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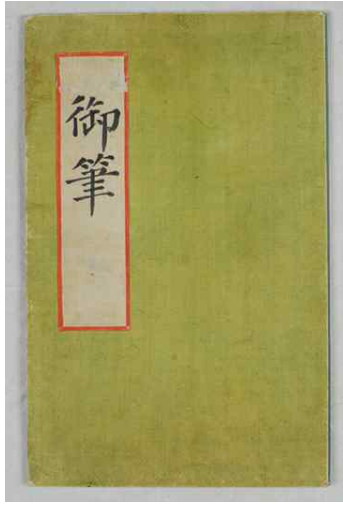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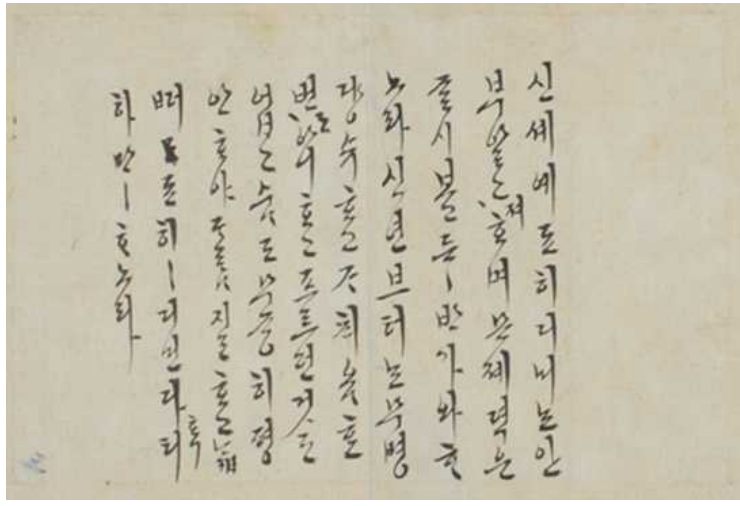
【현대역】 너희는 셋이 마치 한 말로 (하듯이) 글월을(=편지를) 적었으니 아주 정성 없으니 후에 또 이리 하면 아니 받을 거시니 (그리) 알아라.

☞ You are not sincere at all because three sisters have written letters with the same content. If you write a letter again like this, I will not receive it.

편지로 안부를 주고받다 보면 사연 말미에는 자연히 건강과 편안을 기원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기 마련입니다. 아래 편지는 명성왕후(明聖王后, 1642~1683)가 딸인 명안공주(明安公主, 1667~1687)에게 보낸 것인데 기원을 담아 마무리하는 것은 다를 바 없지만 기원을 표현하는 방식에 이채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 When exchanging greetings through letters, the story naturally ends with a wish for health and comfort. The letter below was sent by Queen Myeongseong (明聖王后, 1642~1683) to her

daughter, Princess Myeongan (明安公主, 1667~1687). Although it ends with a prayer, there is something unique about the way the wish is expressed.

『御筆』 표지	명성왕후 언간(1680~1683년 사이): 어머니(명성왕후) → 딸(명안공주) (『御筆』, 강릉 시립오죽헌박물관 소장)
	

【관독문】 신세에 도히 디내는 안부 알고져 하며 문제 덕은 글시 보고 든든 반가와 호노라 신년부터는 무병당슈호고 즈치옴 혼 번도 아니호고 프르던 것도 업고 숨도 무궁히 평안호야 드롭질호고 놀며 도히도히 디낸다 하니 티하 만만 호노라 <어머니(명성왕후) → 딸(명안공주)>

【현대역】 새해에 잘 지내는 안부 알고자 하며, 그저께 적은 글씨(=편지) 보고 든든하고 반가워한다. 새해부터는 무병장수하고, 재채기 한번도 아니하고, 푸르던 것도 없고, 숨도 늘 평안하여 달음질하고 날뛰며 잘 지낸다 하니 거듭거듭 축하한다.

☞ …… From the new year onwards, I congratulate you again and again, as you live a long and healthy life, never sneeze, have no blue color, and always breathe peacefully, running and jumping wildly.

명안공주는 몸이 약해 병치레가 자주 있었습니다. 위 편지에 앞서 다른 편지에는 명안공주가 피접을 나가 ‘역신(=홍역)’을 잘 치르고 온 데 대한 안도와 기쁨을 전한 편지도 있습니다. 병치레를 자주한 딸이기에 명성왕후는 새해를 맞아 희망 사항을 하나하나 꼽아 가며 딸에게 덕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이미 실현된 것으로 보고 축하를 전하는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민속적 전통을 따른 표현 방식이겠지만 오늘날에도 통용될 만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 …… As her daughter suffers from illness frequently, Queen Myeongseong is giving good wishes to her daughter by listing her wishes one by one for the New Year. However, it is interesting how Queen Myeongseong (明聖王后) conveyed her congratulations, assuming that her wishes had already been realized. It may be a way of expression based on folk tradition, but it may be used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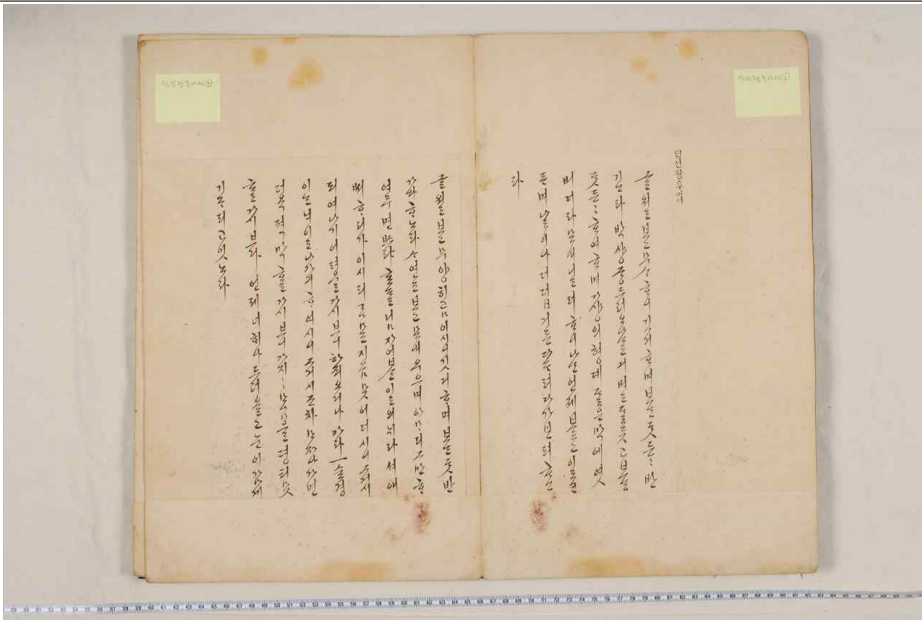
(2) “일상”

앞서 (문안 편지에 대한) 효종(孝宗)의 회신에서 이미 엿볼 수 있었지만 왕실 언간은 격식과 범도가 중시되는 한편 편지의 사연 속에서는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일상’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부왕(父王) 효종의 편지와 함께 모후(母后)인 인선왕후(仁宣王后, 1618~1674)가 딸 숙명공주에게 보낸 편지도 아래와 같이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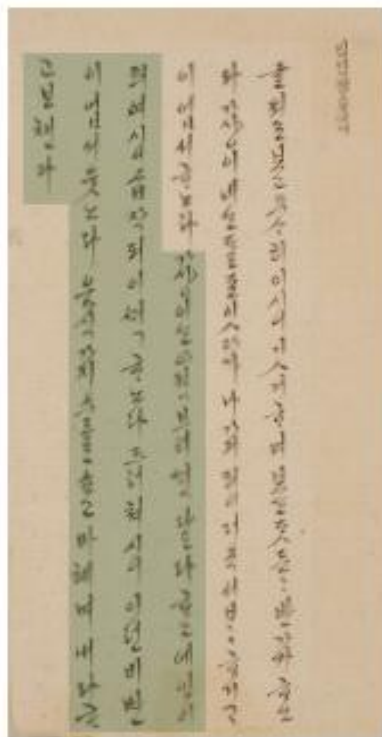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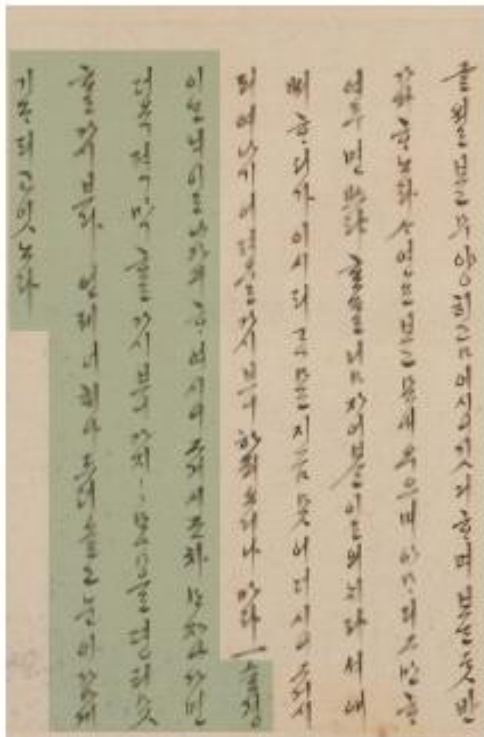
☞ As we could already see in Hyojong's reply, formality and rule are emphasized in royal letters, while extremely ordinary 'daily life' is also revealed in the stories of the letters. Along with the letter from his father, Hyojong (孝宗), a letter from his mother, Queen Inseon (仁宣王后), to her daughter, Princess Sungmyeong (淑明公主), is also extant as follows.

인선왕후 언간(1660년대), 어머니(인선왕후) → 딸(숙명공주)
 (『숙명신한첩』,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a

b



a.

【관독문】 숙경이는 니일 나가게 하여시니 그거시조차 마저 나가면 더욱 적막홀가 시브니 가지 〃 막음을 덩터 못홀가 시브다 언젠 너희나 드러올고 눈이 감게 기다리고 잇노라 <어머니(인선왕후)→딸(숙명공주)>

【현대역】 숙경(淑敬)이는 내일 나가게 되었으니 그것조차 마저 나가면 더욱 적막할까 싶으니 가지가지 마음을 진정치 못할까 싶다. 언젠 너희나 들어올까 눈이 감기도록 기다리고 있다.

☞ I will send Sukgyeong (淑敬) away from home tomorrow. If she leaves home now, I will be more lonely. (Thinking of this), I really cannot calm myself. I wonder when you will come back. I cannot help closing my eyes and waiting for your return.

b.

【관독문】 가상이는 아적브터 썩 달라 호고 에인이 피여시니 급작되이 썩 호노라 드러쳐시니 이런 비변이 업서 옷노라 음식 가지 수를 손고바 헤며 내라 호고 보챤다 <어머니(인선왕후)→딸(숙명공주)>

【현대역】 가상이는 아침부터 떡 달라 하고 어리광이(?) 피었으니, 급작스레 떡 하느라 떠들썩하였으니 이런 변(?)이 없어 옷노라. 음식 가지 수를 손꼽아 세며 내 놓으라 하고 보챤다.

☞ Gasang (the name of Queen Inseon's grandson) begged for rice cakes since this morning. We suddenly found ourselves rushing to prepare rice cakes, and all were amused at the unexpected situation. Counting the prepared food with his fingers, he importuned to eat them.

위에서 편지 (a)는 막내딸[淑敬公主]의 혼인을 앞두고 쓴 것입니다. 막내딸을 내보내기 전날의 적막한 심정과 함께 이미 혼인한 딸[淑明公主]을 더욱 그리워하는 모정(母情)을 담고 있습니다. ‘눈이 감게’(“눈이 감기도록” 혹은 “눈이 감어지도록”)라는 표현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눈앞에 보는 듯합니다. (b)는 갑자기 떡을 달라며 보채는 손자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난데없는 소동을 겪으면 서도 그것을 손자의 귀여운 어리광으로 바라보는 할머니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 (a) was the letter sent by the Queen Inseon to her daughter, Princess Sungmyeong. The letter expresses the mother's loneliness after her youngest daughter wedded as well as her heart longing for the already married daughter, Princess Sungmyeong. From the expression of "I cannot help closing my eyes and waiting for your return," we can conjure the image of an anxiously expecting mother. (b) describes a fretful little grandson who suddenly wants rice cakes. Despite the unexpected disturbance, the grandmother's affection for the cute coquetry of her little grandson was well displayed.

왕실에서 오간 편지라 하지만 편지에 담긴 가족의 모습은 어느 여염집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편지 속의 가족들이 고달픈 이국(異國) 생활을 함께했던 ‘각별함’ 사이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효종은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있고 난 뒤 청나라 심양(瀋陽)으로 가 8년간 외롭고 힘든 볼모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시절에 효종 내외가 심양에서 얻은 딸이 바로 숙명공주와 숙희공주였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견뎌야 했기에 거기서 생겨난 가족간의 ‘각별함’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별함’이 무엇보다 ‘한글’을 통해 표현되고 전달된 점을 놓칠 수 없습니다. 마음속 애환을 자신의 육성(肉聲)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한글’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처럼 정감 넘치는 편지로 남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 Although both letters are sent from the royal family, the picture of the family in the letters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of an ordinary family. Of course, this may be because the family in the letter was a ‘special’ relationship who shared a difficult life in a foreign country. After the war

(丙子胡亂), Hyojong (孝宗) went to Shenyang (瀋陽) of the Qing Dynasty and lived a lonely and difficult life as a hostage for eight years. During these times, the daughters that King Hyojong and his wife had in Shenyang were Princess Sungmyeong (淑明公主) and Princess Sukhwi (淑徽公主). It is easy to imagine the ‘specialness’ that arose between families as they had to endure hardships together. However, we cannot miss the fact that ‘specialness’ was expressed and communicated through vernacular script more than anything else. Without vernacular script, a method that vividly conveys the joys and sorrows in one’s heart through one’s own voice,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write such an emotional letter at that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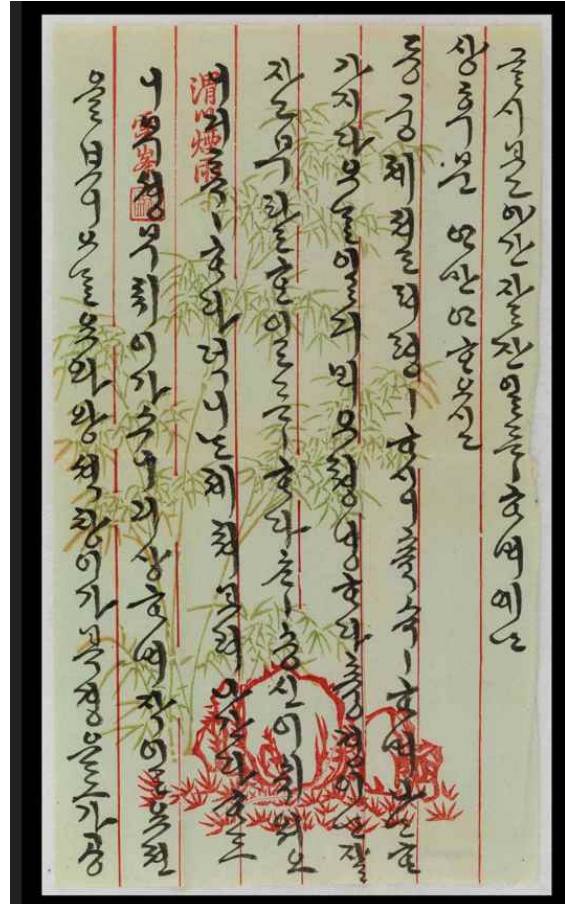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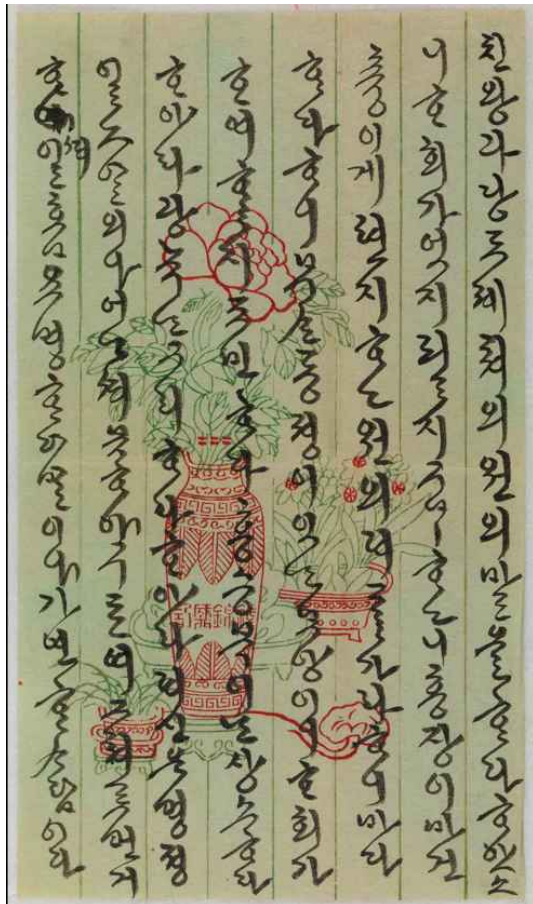
(3) “정치”

왕실 언간에 평범한 “안부”와 “일상”만이 담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정사에 깊이 관여한 왕실 여성의 편지에는 당시의 정치나 조정(朝廷)의 이면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흥미롭게 등장합니다.

☞ Royal letters did not just contain ordinary “greetings” and “daily life.” Letters from royal women who were deeply involved in the government’s affairs also contain interesting content that provides a glimpse into the politics and government of the time.

명성왕후 언간(1885~1890년 사이): 고모(명성왕후) → 조카(민영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관독문】 글시 보고 야간 잘 잔 일 든 ” 하며 예는 [顛]상후 문[隔]안 만안호오시고 [顛]동궁 제절 티평 ”
 하시니 축슈 ” 하며 나는 혼가지다 오늘 일기 밋오 청녕하다 충경이는 잘 자고 무탈한 일 든 ”
 하다 츠 ” 승신이 쉬워 오니 괴특 ” 하다 덕니는 제 처 보려 나간다 흐드니 무성무취이 가스니
 괴상하며 작일 요전을 보니 오늘 요와 왕석창이가 북경으로 가 공친왕과 당도 제처의 원의 말
 을 한다 흐앗스니 하회가 엇지 될지 굶 ” 하고 니홍장이 마건충이게 편지하고 원의 더롤 가라
 하니 마다한다 하니 무슨 동정이 잇는 모양이니 하회가 하여홀지 조민하다 흥승목이는 상소하
 라 해야라 광뉴는 그리하라 해야라 더신은 명정 일노 알외나 어느 썸 못해야 구투여 그쳐로
 번거흔 썸 일홈 요명한다 말이나 가연흔 스람이다 <숙모(명성왕후) → 조카(민영소)>

【현대역】 …(상략)…덕니(Denny)는 자기 처(妻)를 보려고 나간다 하더니 소식도 없이 갔으니 괴상하며,
 어제 요전을 보니 요와 왕석창(王錫鬯)이가 북경(北京)으로 가서 공친왕(恭親王)과 조선에 있
 는 원세개(袁世凱)의 말을 한다고 하였으니 하회(下回)가 어찌 될지 궁금하고, 이홍장(李鴻章)
 이 마건충(馬建忠)이에게 편지하고 … 무슨 동정(動靜)이 잇는 모양이니 하회(下回)가 어떠할
 지 조민(躁悶, 조급하고 민망함)하다. …(하략)…】

위 편지는 1885~1890년 사이, 명성왕후(明成王后, 1851~1895)가 조카인 민영소(閔泳韶, 1862~1917)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른바 ‘궁체’의 특징과 함께 막힘없이 써 내려간 필체를 통해 왕후의 거침 없는 성격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편지 속에는 당시 조선 정부의 외교 고문이었던 ‘덕니’(德尼, Denny)를 비롯하여, ‘니홍장’(李鴻章, Lǐ Hóngzhāng), ‘마건충’(馬建忠, Mǎ Jiànzhōng), ‘원’(袁世凱, Yuán Shìkǎi) 등 당시 중국의 유력자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편지를 포함하여 명성왕후가 남긴 편지는 총 200건에 육박하는데 당시의 시대 상황과 더불어 조선 왕실의 사정을 직접 살필 수 있는 1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 수렴청정 등 당시의 정치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왕실 여성(예: 정순왕후, 순원왕후)의 경우 언간 자료가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 당시의 정치와 조정의 이면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The above letter was sent by Queen Myeongseong (明成王后, 1851~1895) to her niece Min Yeongso (閔泳韶, 1862~1917) between 1885 and 1890. Alo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alled ‘palace style’, we can also get a good look at the queen’s outspoken personality through her flawless handwriting. In the letter, there are names of Denny (德尼), who was a diplomatic advisor to the Joseon government at the time, Lǐ Hóngzhāng (李鴻章), Mǎ Jiànzhōng (馬建忠), and Yuán Shìkǎi (袁世凱). Including this letter, the total number of letters left by Queen Myeongseong is close to 200, and can be the primary source of information that allows us to directly examine the circumstances of the Joseon Dynasty. In recent years, in the case of royal women who were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e politics of the time (e.g., Queen Jeongsun 貞純王后 and Queen Sunwon 純元王后), archived materials are being released one after another, and this could be important information that provides a glimpse into the other side of the politics and government of the time.

(4) “유한”

왕실 여성의 언간에는 가슴속에 응어리진 “유한”을 담은 경우도 보입니다. 아래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純宗)의 비(妃) 순명황후(純明皇后, 1872~1904)의 편지입니다.

☞ In the royal woman’s letters, there are instances where she contains the “resentment” deep within her heart. Below is a letter from Empress Sunmyeong (純明皇后, 1872~1904), the queen of

Sunjong (純宗), the last emperor of the Taehan Empire (大韓帝國).

순명황후 언간(1904년): 순명황후(세자빈) → 김상덕(세자의 스승)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관독문】 …(상략)… 생각이 기시의 맞스오면 츠신이 읍고져 흥는 말쌈 일필난괴이오이다 …(하략)…

【현대역】 …(상략)… 생각이 그때에 미치면 이 몸이 없어지고자(=죽고자) 하는 말쌈 붓으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하략)…

☞ …… When my thoughts reach that time, it is difficult to write with a brush the words I want to abandon this body. ……

이 편지는 순명황후가 세자빈으로 있을 때 세자의 스승으로 인연을 맺은 김상덕(金商惠, 1852~1924)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황후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을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황후는 이때 마음의 병을 얻어 끝내 회복하지 못했는데 시아버지 고종은 순명황후의 사후에 묘지명(墓誌銘)을 직접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 This letter was sent by Empress Sunmyeongh (純明皇后) to Kim Sang-deok (金商惠, 1852~1924), whom she had a relationship with as the crown prince's teacher when she was the Crown Princess. The Empress was present at the scene of the assassination of Empress Myeongseong (明成皇后) in 1895. At this time, the empress suffered from mental illness and never recovered, and her father-in-law, King Gojong (高宗), personally wrote her epitaph after the death of Empress Sunmyeongh, writing as follows:

“을미년에 이르러 흉악한 무리들이 대궐을 침범하였을 때, 비는 명성황후(明成皇后)를 막아나서 보호하다가 그만 흉악한 무리들에게 앞길이 막혔으며, 끝내 천고에 있어 본 적이 없는 큰 참변을 당하였다. 비는 또 기가 막혀 쓰러지고 반나절이 지나간 다음에 시녀에게 전하와 황태자의 안부를 물어보고는 그길로 눈을 감은 채 깨어나지 못하였고 구급약을 갖추어 치료해서 새벽에야 소생하였다. 비는 이로 말미암아 언제나 마치 젓어미를 잃은 젓먹이마냥 정신없이 지냈으며, 때로는 한창 음식을 들다가도 한숨을 쉬고는 슬픔에 겨워 목이 메곤 하였고, 옷과 베개, 이불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적셨다.”

☞ In the year of 1895, when vicious groups invaded the palace, the queen blocked and protected Empress Myeongseong (明成皇后), but her path was blocked by the vicious groups, and she suffered a catastrophe the likes of which she had never seen before. The queen again fainted from her despair, and after half a day had passed, she asked her maid about the safety of her emperor and crown prince. Immediately after that, the queen closed her eyes and was unable to wake up. She was treated with first aid medicine and was revived at dawn. After this happened, the queen was always in a state of confusion, as if she were a baby who had lost her nurse. Sometimes, even in the middle of eating, she would sigh and choke with grief. She also soaked her clothes, pillows, and blankets with her endless flowing tears.

이 편지는 바로 황후가 1904년(33세)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생각이 그때에 미치면 이 몸이 없어지고자 하는”이라는 표현에서 당시 황후의 “유한”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습니다. 꽃이 그려진 시전지(詩箋紙)에 달필의 궁체(宮體)로 아름답게 씌어진 편지이지만 사연의 이면을 알고 보면 그 꽃에서 아름다움을 넘어 ‘처절함’이 느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 This letter was written by the Empress shortly before her death in 1904. The expression, “When my thoughts reach that time, I want to abandon this body,” clearly conveys the “한(恨)” of the Empress at the time. It is a beautifully written letter in an elegant ‘place style’ on paper with flowers drawn on it, but when you get to know the story behind the letter, you cannot help but feel that the flowers go beyond their beauty and make you feel ‘grievous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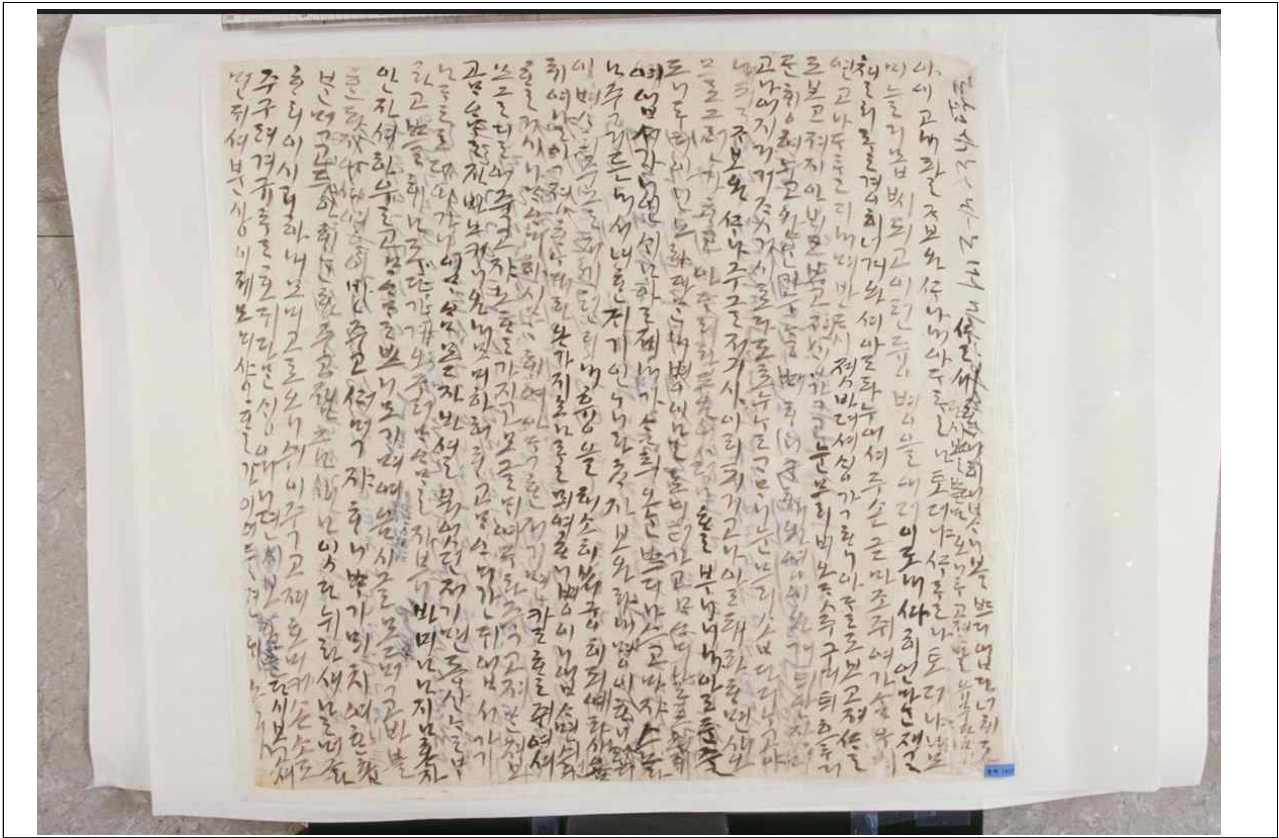
3. 민간 언간과 여성

왕실 언간과 비교할 때 민간 언간에는 개인의 감정이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른 시기 16세기 중후반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에서 절절한 “신세 한탄”이 담긴 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 Compared to royal letters, letters from civilian women often reveal personal feelings more clearly. First, let’s look at a letter containing an earnest “lament over one’s own situation” found in the letters excavated from the tomb of Suncheon Kimssi (順天金氏) dated to the mid to late 16th century.

(1) “한탄”

<순천강씨 언간(1550~1592년 사이): 어머니(신천강씨) → 딸(순천김씨)>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충북대박물관 소장)



【판독문】 아이고 내 팔즈 보와쓰나 ... (중략) ... 알페라 흐면 새오므로 그런가 흐고 아드리라도 와 엇더니 홀 부니니 내 알폰 줄도 니르디 아닌노라 다몬 내 병이 날로 디터 가고 므스미 날로 허히 예 업서 가니 인식나 알 제 내 가슴 픽오는 뜨디나 스고 마자 스노라 병이니 업스면 시원할 거시니 므스미 하 심심히여 아득한 저기면 칼홀 쥐여서 모글 덜어 죽고자 노홀 가지고 모글 띠여 드라 죽고져 문져 보고 므스물 자바 노커니와 ... (하략) ... <순천김씨묘-073, 1550~1592년, 신천강씨(어머니) → 순천김씨(딸)>

【현대역】 아이고 내 팔자 보았는가 아프다 하면 질투로 그런가 하고 아들이라도 와 어떤가 할 뿐이니 내가 아픈 것도 이르지 않는다. 다만 내 병이 날로 짙어(=심해) 가고 마음이 날로 허하여 없어져 가니 인사(人事)나 알 때 내 가슴 태우는 뜻이나 쓰고 말자 쓴다 병인(病人)이 없으면(=죽으면) 시원할 것이니 마음이 하도(=너무) 심란하여 어둑한 적이면 칼을 쥐어서 목을 찢러 죽고자 노를(=노끈을) 가지고 목을 매어 달아 죽고자 만져 보고 마음을 잡아 놓거니와

☞ When I say, 'I'm sick,' my husband says she's jealous, and my sons come and just ask 'what's going on,' so now I don't even mention 'I'm sick.' However, because my illness is getting worse and my heart is getting weaker day by day, I am writing this letter to make you aware of the circumstances that burn my heart when I am conscious. When the person with the disease dies, everyone's heart will be relieved. When I am so distraught and in the dark, should I take a knife and stab myself in the neck and die, or should I take a piece of twine and hang myself? I was thinking about dying, but then I came to my senses again.

이 편지는 병 때문에 멀리서 요양중인 어머니(신천강씨)가 딸(순천김씨)에게 쓴 편지입니다. 다른 편지를 참조할 때 어머니는 이른바 처첩(妻妾) 갈등 속에 마음의 병을 얻어 이것이 신병(身病)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멀리 혼자 나와 요양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이 편지는 ‘아이고 내 팔자 보았는가’ 하는 하소연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남편은 질투로 그런다 하고 아들들은 와서 그저 건성으로 ‘어떤가’ 할 뿐이니 이제는 ‘아프다’는 얘기도 꺼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밤이 되어 어둑해질 때면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다가 겨우 진정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딸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정신이나 있을 때 가슴을 태우는 자신의 사연이나 알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16세기 중후반이라면 한글이 만들어지고 1세기가 조금 지난 시점인데 그 시점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절절하기 이를 데 없는 격정적 사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This letter was written by a mother (信川康氏) who was recuperating far away due to an illness to her daughter (順天金氏). Referring to another letters, the mother suffered mental illness due to the so-called conflict between wife and concubine, which led to her becoming seriously ill and eventually living alone in a faraway place for treatment. This letter begins with the cry, “아이고 내 팔자 보았는가?” When she says, ‘I’m sick,’ her husband says she’s jealous, and her sons come and just ask ‘what’s going on,’ so now she doesn’t even mention ‘I’m sick.’ When night falls and it gets dark, she thinks about various extreme thoughts and then finally calms down and turns her mind around. Even writing a letter to her daughter was just for the purpose of letting the daughter know her sad story. The mid to late 16th century was a little over a century after the vernacular script was created. You can see an extremely passionate story that is so poignant that it is hard to believe the point in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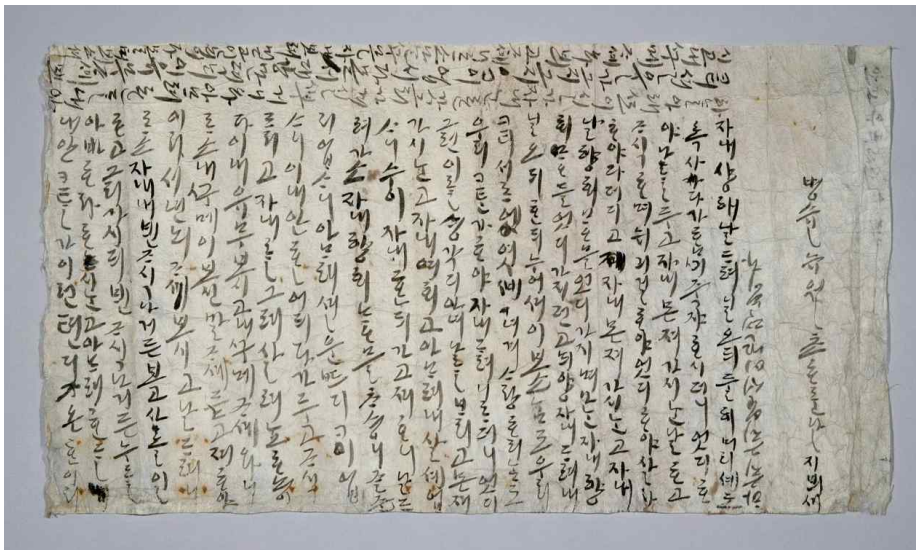
(2) “사랑”

“한탄”만이 아니라 언간은 애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아래 편지는 이른바 죽은 사람의 관 속에 넣어 준 ‘관중서(棺中書)’로서, 1586년 이응태(李應台)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쓴 편지입니다.

☞ In addition to “lament,” vernacular letters were also used to express heartbreaking “love.” The letter below was placed in the coffin of a dead person, and written by the wife of Lee Eungtae (李應台) to her husband who passed away before her in 1586.

이응태묘 출토 언간(1586년): 아내(원이 엄마)→남편(이응태)

(안동대박물관 소장)



【판독문】 … 자내 상해 날드려 닐오디 돌히 머리 세도록 사다가 흙씩 죽자 하시더니 엇디호야 나를 두고 자내
몬져 가시는 날호고 즈식호며 누 기결호야 엇디 호야 살라 호야 다 더디고 자내 몬져 가시논고 자내
날 향히 므으를 엇디 가지며 나는 자내 향히 므으를 엇디 가지던고 미양 자내드려 내 닐오디 혼터
누어서 이 보소 늬도 우리ㄴ티 서르 예엿새 녀겨 스랑호리 늬도 우리 ㄴ튼가 호야 자내드려 니르터
니 엇디 그런 이를 생각디 아녀 나를 버리고 몬져 가시논고 자내 여히고 아므려 내 살 세 업스니 수
이 자내한테 가고져 하니 날 드려가소 자내 향히 므으를 츠싱 니줄 주리 업스니 아므려 설운 빠디
ㄴ이 업스니 이 내 안흔 어디다가 두고 즈식 드리고 자내를 그려 살려뇨 호너이다 이 내 유무 보시
고 내 꾸메 즈세 와 니르소 내 꾸메 이 보신 말 즈세 듣고져 호야 이리 서 년뇌 즈세 보시고 날드려
니르소 … <아내→남편(李應台)>(1586년)

【현대역】 … 자네 평소 날더러 이르되 둘이 머리가 세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하여 나를 두고 자
네 먼저 가시는[고]. 나하고 자식하며 누가 분부하여 어찌 하여 살라 하고 다 던지고 자네 먼저 가시
논고. 자네가 날 향해 마음을 어찌 가지며 나는 자네 향해 마음을 어찌 가졌던고. 매양 자네더러 내
이르되, 한테 누워서, “이 보소. 남도 우리같이 서로 어여뻐 여겨, 사랑하는 것이 남도 우리 같은가.”
하고 자네더러 일렀는데, 어찌 그런 일을 생각지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논고. 자네 여의고 어떻
게도 내 살 힘이 없으니 쉬(=빨리) 자네한테 가고자 하니 날 데려가소. 자네 향해 마음을 차생(此生)
잇을 바가 없으니, 어떻게든 서러운 뜻이 한없으니, 이 내 마음은 어디다가 두고 자식 데리고 자네를
그리워하며 살겠는가 합니다. 이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자세히 와 이르소. 내 꿈에 이것(=편지) 보
신 말 자세히 듣고자 하여 이리 써서 넣네. 자세히 보시고 날더러 이르소. …

☞ You often said that we would live until our heads turn grey and then die together. Why is it that you deserted me and went to your reward so early? What makes you think that I would be able to live without you? The feelings you had for me are just like the feelings I have for you. When you were alive, I asked you every night while we lay together, "Honey, do other couples love each other like we do?" How could you forget that promise and go away by yourself, leaving me alone? Without you I cannot live, and so please let me go with you. I am unable to forget you in this life; my mind's grief is immeasurable in this world. I do not know whether I can put my sorrow away and continue to live with our children while missing you. Read my letter carefully, and come to my dreams and talk to me. I want to hear in my dreams that you read my letter. For this reason I put it in your coffin. Read it carefully and talk to me.

이 편지는 시신을 지키기라도 하듯 시신의 가슴 위를 덮고 있던 것인데, 갑작스레 배우자를 잃고 난 뒤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하소연하듯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편지에는 아내가 생전의 다정했던 한때를 회상하며 꿈에라도 와 달라는 애절한 사연을 담아 4세기 이상이 지난 오늘날에도 읽는 이의 심금을 울려 줍니다. 언간이 그만큼 개인의 절절한 심정을 담아내는 수단이었기에 이 같은 관중서가 존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This letter was written over the body's chest as if to protect it, and is written as if complaining about the sorrowful and helpless feeling after suddenly losing her spouse. In particular, this letter contains a heart-rending story in which her wife reminisces about a tender time in her life and asks him to come to her in her dreams, and it still touches the heart of the reader even today, more than four centuries later. A letter like this could have existed because vernacular letters were a means of expressing an individual's earnest feelings.

다음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관 속에서는 이상한 미투리도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이 미투리는 아내(발신자)가 남편(수신자)을 위해 하루속히 병이 낫기를 기원하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미투리 재료인 삼과 엮어 만든 것입니다. 이 미투리를 신어 보지도 못한 채 남편 이응태(李應台)는 30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편지가 출토된 안동(安東)에서는 ‘원이엄마 공원’을 조성하여 부부간의 애절한 사랑을 기리고 있습니다.

☞ As you can see in the following image, strange shoes were also found in the coffin. These shoes were made by her wife (the sender), who woven her own hair together with the material of shoes, praying for her husband (the receiver) that he would get better soon. Her husband Lee Eungtae (李應台) passed away at the young age of 30 without even trying on these shoes. Today, in Andong (安東), where the letter was excavated, ‘Woni’s Mom Park’ is built to commemorate the heartbreaking love between the cou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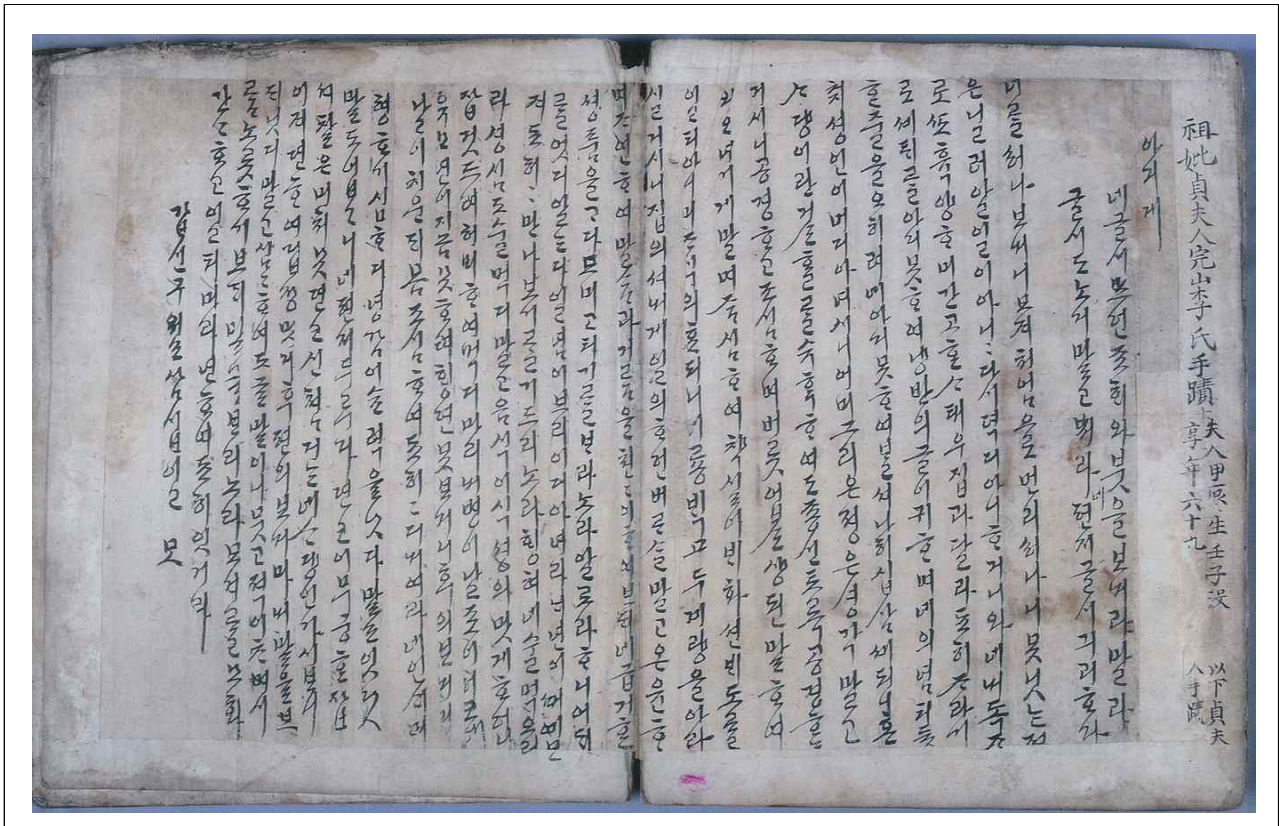


(3) “교육”

민간 언간에는 오늘날과 같이 자식의 “교육”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사연도 보입니다. 아래는 18세기에 어머니 완산이씨(完山李氏)가 집을 떠나 멀리 공부하러 간 아들(孟淑周, 1692~1742)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 In letters from ordinary women, we also see stories of concerns about their children’s “education,” just like today. Below is a letter from her mother (完山李氏) in the 18th century to her son (孟淑周), who left her home and went far to study.

완산이씨 언간(1704년): 어머니(완산이씨) → 아들(맹숙주)
(『자손보전』)



【관독문】 요사이 무슨하냐 듀야 일념의 니즌 스이 업고 희췌 가실 적터로 나든니고 요란히 구는가 글 아니 닐는가 듀야 녀녀 일지도 니즌 스이 업고 오는 가는 사람이 업서 소식도 즈로 모르니 답 " 녀네 무궁 " 하며 왕년의 편지도 아니 " 다른 일은 답디 아니코 언문 아니 쓰기는 비릇한다 답 " 도 아니하냐 글이나 착실히 읽고 나든니거나 아니하느냐 ... 네 글이 미거 " 하니 듀야 믿음의 걸려 굽 " 속이 준다 ... <완산이씨 인간(1704년): 어머니(完山李氏) → 아들(맹숙주)>

【현대역】 요사이 무사하냐? 주야(晝夜) 일념(一念)에 잇은 사이 없고 해주(海州) 갔을 적처럼 나다니고 요란히 구는지, 글 아니 읽는지, 주야 염려(念慮) 일지도 잇은 사이 없고, 오는 가는 사람이 없어 소식도 자주 모르니 답답하고 염려가 무궁 무궁하며, 왕래에 편지도 아니 하니 다른 일은 닐지 아니하고 언문 아니 쓰는 것은 배웠느냐? 답답도 아니하냐? 글이나 착실히 읽고, 나다니거나 아니하느냐? ... 네 글이 미거 미거(未舉, 철이 없고 사리에 어두움)하니 주야(晝夜) 마음에 걸려 갑갑하고 속이 준다. ...】

이 편지에는 공부하러 간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들 교육을 학식이 있는 문중의 어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편지에는 멀리 다른 집에 보낸 자식이 글은 잘 읽고 있는지 혹이나 전처럼 요란하게 굴고 있거나 없는지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공부가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어서 그것만도 마음에 걸리고 속이 타는데 자식은 편지로 소식을 전하는 일마저도 게으릅니다. 이 때문에 오고가는 인편(人便)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래에 편지도 아니 하니 다른 일은 (남편을?) 닐지 아니하고 언문 아니 쓰는 것은 배웠느냐?”고 자식을 질책하는 내용도 보입니다. 어찌면 오늘날 자식을 학원에 보내고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연락은 왜 이리도 없는지 이런 저런 걱정에 마음이 타는 어머니 모습을 연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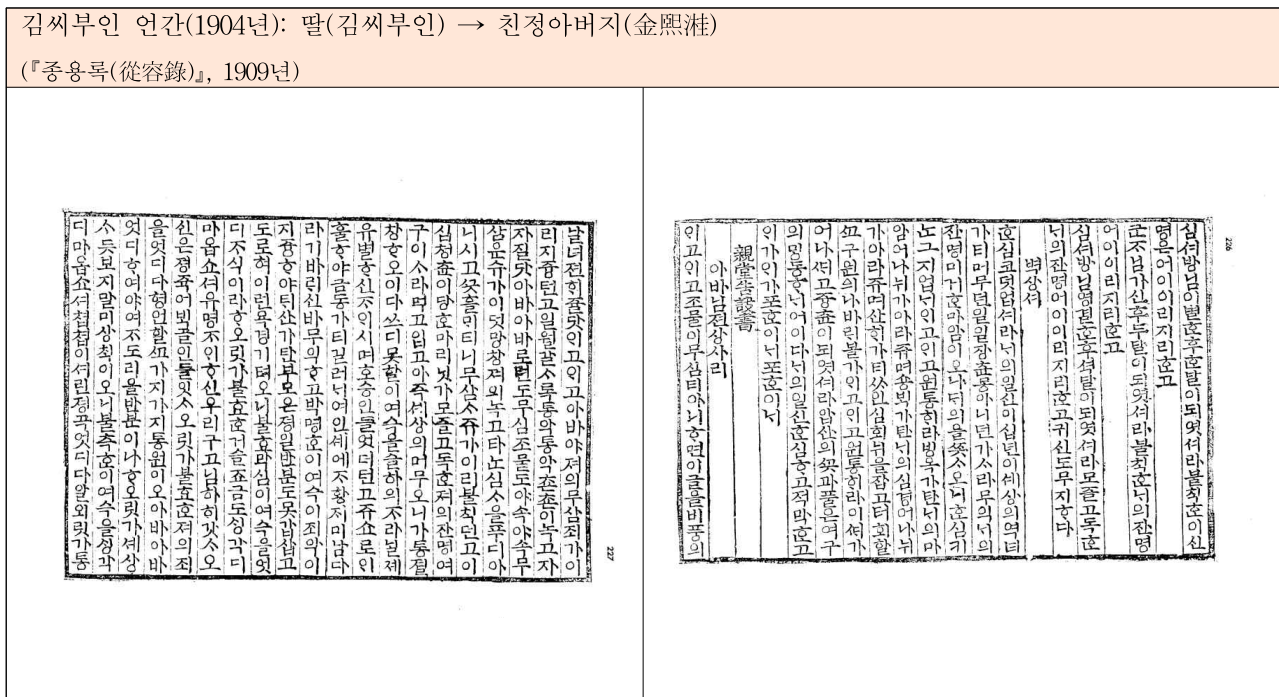
☞ This letter clearly shows the mother's concerns about her son who went to study. At that time, children's education was often entrusted to adults from knowledgeable families. In this letter, there are endless worries about whether the child sent far away to another home is

reading well and whether he is being noisy as before. In this letter, there are endless worries about whether the child sent to the family's adult home is reading well and whether he is being noisy as before. The mother is upset by her son's poor academic performance, and her son is lazy even to send her the news through letters. For this reason, you can see a content reprimanding a child, saying, “Since you don’t even write letters, do you take after your father(?) in not writing vernacular letters, except for other things?” Perhaps today, you might be reminded of a mother who sends her son to a private academy and is anxious about whether he is doing well in his studies or why she is unable to contact him.

(4) “영결”

앞서 왕실 인간에서 “유한”이 담긴 편지를 보았지만 민간 인간에서는 친정아버지에게 전하는 유서(遺書) 성격의 편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아바님전 상사리”로 시작하고 있는데 ‘상사리’는 “사뢰어 올린다는 뜻으로, 웃어른에게 드리는 편지의 첫머리나 끝에 쓰는 말”<표준 국어대사전>입니다. 이 편지는 나중에 한문으로 번문(翻文)되면서 ‘親堂告訣書(친당고결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告訣’은 ‘영결(永訣)’ 곧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영원히 헤어짐”을 의미하므로 이 편지는 곧 딸이 친정아버지에게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편지라 하겠습니다.

☞ …… This letter is a letter from her daughter saying ‘eternal farewell’ to her father.



平分未報還貽此辱境不孝莫甚此女息字息云
 乎有名慈愛我舅姑河海恩情白骨難忘事不孝
 運參之罪何可盡言父兮父兮何以則女子道理半分
 為之乎痛哭痛哭寒心寒心生無益世運之殘命從
 大義分靡他父兮父兮願勿患萬萬情何以盡告
 宇
 右四書刻婦瑞瑛氏金孺人臨終時所書也而友
 人沈應善其歸稿出者其志將欲以真諺金
 行照汗書而炳如丹完雖不敏素養好德之所同
 亦不能辭謹按刻婦生長小學家隘通內則烈女
 等篇已知三綱五倫之外無他道矣及歸沈氏夫
 載德不幸早世烈婦任命自誓不依殷田的亂色
 凡附身棺慰舅始無所不用其極斷斷以之死矢
 之而從容處義於壁上書見之矣至於私親告設
 書眷眷以未報鞠育之恩為恨古人所謂已燻而
 孝不衰於父母者歟靈夢醴泉豈無本源而然哉
 小學家法益可驗矣載德害故人肖子嘗一得見
 而所居箱在難未知造詣之如何觀於所刑其修
 齊之實略線可想此亦足以宜見於文者也嗚呼
 今天下網絕倫敗道君後親治治豈是如聞烈婦
 恨抱恨

君于別後已一月耳哀我身命何如是支離
 君于後且二月耳哀我身命何如是支離
 君于求後後人三月耳頑忍我殘命何如是支離
 亦無知
 壁書
 寒心可憐吾一身二十年如逆旅住世一場春夢非
 此乎生之無益此殘命大義欲從寒心固難免痛免
 痛冰玉松柏我心境誰復知之猶如山海我懷抱誰
 與共擔九原可相見否哀哀痛此時何時當仲
 春前山花草依猶動君子歸不歸惟我一身寒心
 寂寞哀哀抱恨恨
 親室告訣書
 哀哀造物不無心此書飛風可傳達哀哀父兮父兮
 渠之甚罪如此至重日月去益痛益痛寸寸銷盡
 父兮父兮老天無心造物無情運數如此哀倉二十
 青春此何說頑忍殘命如舊而生食之衣之姑住世
 間可痛切恨無用此女息膝下鞠育慈愛有別好勝
 何如實實受臨視如金童人世滋味異於人所
 望無益請命此女息罪厄至重泰山我父母恩情一

平分未報還貽此辱境不孝莫甚此女息字息云
 乎有名慈愛我舅姑河海恩情白骨難忘事不孝
 運參之罪何可盡言父兮父兮何以則女子道理半分
 為之乎痛哭痛哭寒心寒心生無益世運之殘命從
 大義分靡他父兮父兮願勿患萬萬情何以盡告
 宇
 右四書刻婦瑞瑛氏金孺人臨終時所書也而友
 人沈應善其歸稿出者其志將欲以真諺金
 行照汗書而炳如丹完雖不敏素養好德之所同
 亦不能辭謹按刻婦生長小學家隘通內則烈女
 等篇已知三綱五倫之外無他道矣及歸沈氏夫
 載德不幸早世烈婦任命自誓不依殷田的亂色
 凡附身棺慰舅始無所不用其極斷斷以之死矢
 之而從容處義於壁上書見之矣至於私親告設
 書眷眷以未報鞠育之恩為恨古人所謂已燻而
 孝不衰於父母者歟靈夢醴泉豈無本源而然哉
 小學家法益可驗矣載德害故人肖子嘗一得見
 而所居箱在難未知造詣之如何觀於所刑其修
 齊之實略線可想此亦足以宜見於文者也嗚呼
 今天下網絕倫敗道君後親治治豈是如聞烈婦

【판독문】 아버님 전 상사리

이고이고 조물이 무심티 아니하면 이 글을 비풍의 날너 전히 줄 닷 이고이고 아바야 저의 무
 삼 죄가 이리 지중던고 로턴도 무심 조물도 야속야속 무삼 운슈가 이덧 망창 저의 녹고
 타는 심스를 푸디 아니시고 싯흘 미티니 무삼 스쥬가 이리 불칙던고 이십 청춘이 당흔 마리
 닷가 모즐고 독흔 저의 잔명 여구이 스라 먹고 입고 아즉 세상의 머므오니 가통절창 호오이
 다 불효흔 저의 죄을 엇디 다 형언할꼬 통곡통곡 혼심혼심 쓸곳업산 저의 잔명 터
 의을 쫓스오니 아바 아바 그리 아옵쇼셔

【번문(翻文)] 親室告訣書

哀哀造物不無心 此書飛風可傳達 哀哀父兮父兮 渠之甚罪 如此至重 老天無心 造物無情 運

數如此茫蒼 二十青春止何說 頑忍殘命 如舊而生 食之衣之 姑住世間可痛切 恨無用止 …… 事事不孝 渠之罪 何可盡言 …… 痛哭痛哭 寒心寒心 生無益世 渠之殘命 從大義兮 父兮父兮 願勿患萬萬情曲 何以盡告呼

【현대역】 …… 애고애고 아버지, 저의 무슨 죄가 이리도 무겁습니까? …… 하늘도 무심하고 조물주도 야속합니다. 무슨 운수가 이리도 박합니까? 저의 녹고 타는 심사를 풀어 주지 않고 (이렇게) 끝을 맺게 하니 무슨 사주가 이리도 어이없습니까? 이십 청춘에 이런 일이 온당한 일입니까? …… 쓸데없는 저의 잔명(殘命) 대의를 쫓사오니 아버지 아버지 그리 아옵소서.

☞ …… Oh, Father, what sin of mine was so heavy? The heavens are indifferent and the Creator is also cruel. What fate is so cruel? What kind of instigation is so bad that it ends (like this) without resolving my melting and burning feelings? Is this something I deserve in my twenties? …… I give up my useless life and now follow righteousness. Father, please know t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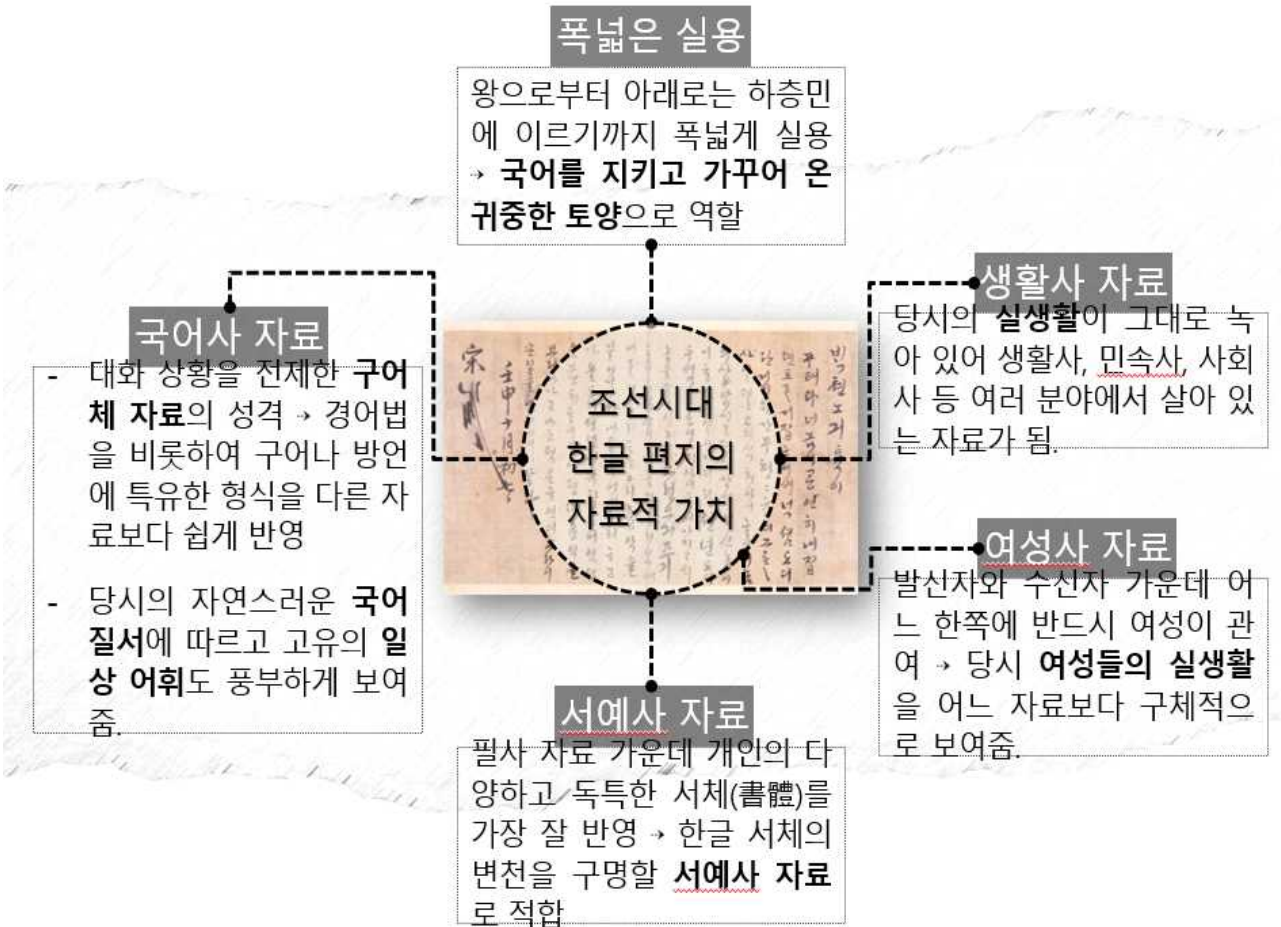
이 편지를 쓴 김씨부인은 17세에 당시 13세이던 남편(沈在德)과 혼인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시름시름 앓다가 6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김씨부인은 3개월 3일 뒤에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원래 3년 3개월 동안 남편의 상을 치름으로써 예를 다하고 나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이를 3개월 3일로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세상에 알려져 당시 보기 드문 열행(烈行)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정아버지에게 보낸 이 편지를 보면 ‘이고이고’라는 원통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하고, 편지 곳곳에는 자신의 야속한 운명에 대한 한탄 내지 항변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바 아바’를 연이어 부르는 데서는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딸의 애달픈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다고 보이는 한탄과 항변은 나중에 한문으로 번문(翻文)할 때 생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과 한문 사이에 빚어진 차이를 통해 한글의 ‘진달력’을 새삼 돌아보게 되는 편지라 하겠습니다.

☞ …… If you look at this letter, it begins with a bitter cry, ‘이고이고!’ Also, her laments and protests against her own cruel fate are revealed throughout her letter. As she repeatedly calls her father ‘아바 아바’, the sad image of her daughter complaining of her bitterness is drawn before our eyes. However, the laments and protests that seem excessive can be seen being omitted when later translated into Chinese. ……

5. 맺는말

지난해 강연에서는 언간 자료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언간 자료의 가치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In last year's lecture, I introduced the characteristics of vernacular letters and summarized the value of them for research as follows.



'여성'에 초점을 맞출 때 언간 자료는 여성의 육성(肉聲)을 육필(肉筆)로 전하는 자료라는 점에 특히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자료 가운데 여성의 실생활을 이만큼 생생히 전하는 자료도 드물 것입니다. 언간 자료가 이미 한 차례 집대성되었고 새로운 자료 또한 속속 발굴되고 소개되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 When focusing on 'women,' vernacular letters are particularly valuable in that they convey the women's own voices in their own handwriting. Among the materials from the Joseon Dynasty, there are few that convey women's real lives as vividly as these. As the published materials have already been compiled once and new materials are being discovered and introduced one after another, I expect that research in various fields will continue actively in the future.

[참고 문헌]

- 姜在哲(1986), “「김부인 유서」에 대하여”, 韓國學報 43, 一志社.
- 金一根(1986/1991), 三訂版 諺簡의 研究, 건국대학교출판부.
- 남풍현(1996), “언어와 문자”, 조선 시대 생활사, 한국고문서학회 엮음, 역사비평사, 19~31쪽.
- 박병천·정복동·황문환(2012), 조선시대 한글편지 서체자전 1~2,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역락.
- 白斗鉉(2001), “조선 시대의 한글 보급과 실용에 관한 연구”, 震檀學報 92, 193~218쪽.
- 백두현(2003), 현풍곽씨언간 주해, 태학사.
- 안귀남(1999), “固城李氏 李應台 墓 出土 편지”, 문헌과해석 6호, 문헌과해석사, 40~46쪽.
- 安秉禧(1985), “訓民正音 使用에 관한 歷史的 研究 - 창제로부터 19세기까지”, 東方學誌 46·47·48, 延世大 國學 研究院, 793~821쪽.
- 魚江石(2007), “藏書閣 所藏 ‘純明孝皇后 관련 한글 簡札’의 內容과 價値”, 藏書閣 1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63~183쪽.
- 윤양희·김세호·박병천(1994), 조선시대의 한글서예, 미진사.
- 趙恒範(1998), 註解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 홍윤표(2013), 한글이야기 1: 한글의 역사, 태학사.
- 황문환(2015), 언간(諺簡): 조선시대의 한글 편지, 역락.
- 황문환(2021),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일상적인, 너무나 일상적인 ……”, 『고전필담』, 고전번역원.
- 황문환·임치균·전경목·조정아·황은영 엮음(2013), 조선시대 한글편지 관독자료집 1~3,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역락.
- 황문환·김주필·배영환·이래호·조장아·조항범(2016),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 1~6,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역락.

[언간 자료의 웹 서비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에서는 조선시대 한글편지에 대한 웹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조선시대 한글편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연구기간: 2011.12.01~2014.11.30) 사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약 1,500건에 달하는 한글편지에 대하여 편지의 원본 이미지와 함께 판독문, 현대어역, 어휘 주석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현재 1단계(597건) 서비스 중인 아래 주소를 방문하셔서 앞으로 개선할 점을 비롯하여 많은 의견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ddress : <https://archive.aks.ac.kr/letter/letter.do#list.do?itemId=letter&gubun=lettername>

[언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서체사전]

박병천 · 정복동 · 황문환(2012), 조선시대 한글편지 서체사전 1~2,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역락.

[언간 자료를 집대성한 판독자료집]

황문환 · 임치균 · 진경목 · 조정아 · 황은영 엮음(2013),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1~3,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역락.

[언간 자료에 대한 입문서]

황문환(2015), 언간(諺簡): 조선시대의 한글 편지, 역락.

[언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어휘사전]

황문환 · 김주필 · 배영환 · 이래호 · 조장아 · 조항범(2016),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 1~6,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역락.

황문환 (黃文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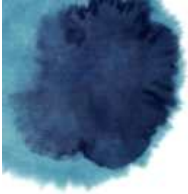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국어사 전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고개로 110 [우편 번호: 13455]

전자우편 : hmhmoon@aks.ac.kr

『조선시대 한글편지 서체사전』(2책, 역락, 2012)

#55



박병천, 정복동, 황문환, 조선시대 한글편지 서체사전 1~2,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다운샘, 2012.12.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3책, 역락, 2013)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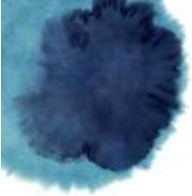


황문환. 임치균. 전경목. 조정아. 황은영,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1~3,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역락, 2013.12.

『언간: 조선시대 한글 편지』(1책, 역락, 2015)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6책, 역락, 2016)



#57



황문환, 김주필, 배영환, 신성철, 이래호, 조정아, 조항범,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 1~6,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역락, 2016.11.